

정형외과학회소식

Newsletter of the Korean Orthopaedic Association

2024년 제67차 전문의자격시험 시행 안내 | 2023년도 수연회원 명단 및 혜택 안내 | 학회 회원 공지 | 제67대 집행부 각종위원회 운영보고 | JKOA 공지사향 · CIOS 공지사향 | 학회 수련실태조사 평가 문항 중 정원책정 지도 전문의 논문 점수 및 대상학회지 안내 | 국내학술행사 | 국제학술행사 | 모집공고 | 회원동정 · 회의실 대관 안내 | 회관 건축기금 모금 현황 및 고액 기부자 명단 | 의료중재원 감정사례 | 동양고전산책 | 출간소식 | 각종 캠페인 안내 · 질환별 팸플렛 안내

회장 **이명철** · 이사장 **석경수** · 총무이사 **김성환**



12

2023 December vol.406



The original 통증엔 플라센텍스

SCI급 광범위한 Clinical Data
재생효과 + 항염증 효과
Non-antigenic 특성으로
탁월한 안전성

관절엔 콘쥬란®

| 관절강용 조직수복용생체재료

6개월 내 최대 5회까지 보험적용가능



Contents

2024년 제67차 전문의자격시험 시행 안내	04
2023년도 수련회원 명단 및 혜택 안내	05
학회 회원 공지	05
제67대 집행부 각종위원회 운영보고	06
JKOA 공지사항 · CIOS 공지사항	07
학회 수련실태조사 평가 문항 중 정원채정지도 전문의 논문 점수 및 대상학회지 안내	08
국내학술행사	09
국제학술행사	10
모집공고	10
회원동정 · 회의실 대관 안내	10
회관 건축기금 모금 현황 및 고액 기부자 명단	11
의료중재원 감정사례	12
동양고전산책	14
출간소식	18
각종 캠페인 안내 · 질환별 팸플렛 안내	21

정형외과학회소식

2023 December vol.406 12월호





2024년 제67차 전문의자격시험 시행 안내

1. 시험 일시 및 합격자 발표

시험 구분	시험 일시	합격자 발표일
1차 시험	2024년 1월 30일(화), 13:00~17:30	2024년 2월 2일(금), 14:00
2차 시험(객관식)	2024년 2월 5일(월), 09:00~11:30	2024년 2월 19일(월), 14:00
2차 시험(구술시험)	비수도권 응시자 2024년 2월 5일(월), 13:00~ 수도권 응시자 2024년 2월 6일(화), 09:00~	

※ 합격자 발표 및 확인은 대한의학회 홈페이지(<http://www.kams.or.kr>), 전문의 자격시험 홈페이지(exam.kams.or.kr) 안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1차 시험 안내 - SBT 시험

1) 시험 일시 및 장소

- ① 일시 : 2024년 1월 30일(화), 13:00~17:30
- ② 장소 : 삼육대학교, 한국삼육고등학교(서울시 노원구 소재)

2) 필수지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수험표

3) 시험시간, 문제 수, 배점, 분야별 문항 수

교시	시험시간	문제유형	문제 수	문제당 배점
1교시(13:00~15:00)	120분	객관식(사진 또는 영상문제)	80문제	0.625점
휴식시간(15:00~15:30)	30분			
2교시(15:30~17:30)	120분	객관식(사진 또는 영상문제)	80문제	0.625점
총계	240점		160문제	100점

* () - 외상 문항 수

구분	고관절	슬관절	족부족관절	척추	견관절	수부	소아	종양	외상(일반)	감염대사	기초재활	총계
문항수	17(2)	18(3)	15(2)	18(3)	15(2)	18(3)	19(5)	10	13	8	9	160

3. 2차 시험 안내

1) SBT 시험(객관식)

시험방식 : 태블릿 PC로 답안작성

필수지참 : 수험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필기구

2) 구술시험

시험방식 : 정형외과 일반 구술시험, 자동 추첨으로 문제 선택

필수지참 : 수험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응시 서류로 제출한 논문, 수술기록지, 전공의 기록부(서류별 제본)

3) 시험 일시 및 장소

① 일시

SBT 시험 : 2024년 2월 5일(월) 09:00~11:30(08:30까지 입실 완료할 것)

구술 시험 : 2024년 2월 5일(월) 13:00~18:00

2024년 2월 6일(화) 09:00~18:00

② 장소 : 용산철도고등학교(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24)

③ SBT 시험 시간, 문제 수, 분야별 문항 수, 배점

교시	시험시간	문제유형	문제 수	문제당 배점
1교시(09:00~11:30)	150분	객관식(사진 또는 영상문제)	100문제	0.7점

* () - 외상 문항 수

구분	고관절	슬관절	족부족관절	척추	견관절	수부	소아	종양	외상(일반)	감염대사	기초재활	총계
문항수	12(2)	12(2)	7(1)	12(2)	7(1)	12(2)	14(4)	6	6	5	7	100

④ 2차 시험 점수 : SBT 시험 + 구술시험 = 총 100점



2023년도 수연회원 명단 및 혜택 안내

매년 회감을 맞으신 수연회원께서는 해당연도 춘추계학술대회 등록비를 면제해 드리오니 아래 명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현	강도원	강동하	강오용	강우호	강홍식	고경석	공경석	구본섭	권기탁	권현섭	김 승
김 철	김경순	김균환	김기성	김기호	김남훈	김동수	김동철	김동형	김민기	김범수	김병철
김상돈	김상욱	김석준	김선규	김성수	김성진	김시환	김연성	김영성	김영중	김영팔	김영호
김용환	김용휘	김원진	김윤식	김응주	김종욱	김진구	김진학	김태훈	김하용	김현철	김형석
김형수	김형진	나기호	남기운	남명곤	노동근	노연섭	노영복	류천환	문성환	문영완	문용호
문진경	문희철	민경대	박 현	박 원	박기원	박동욱	박수성	박용한	박정호	박종훈	박찬지
박찬협	박철홍	박해인	박해일	박현중	박형빈	박홍기	박홍식	배성범	배중우	백대현	백수동
백승창	서대진	서동원	서상동	서승우	서원우	서정환	서진수	성호식	소창성	손수민	송광진
송영오	송원철	송일오	송주현	신득순	신재기	신재훈	신중환	신태식	안기찬	안병문	안상천
안영언	안찬석	엄주석	염동현	염재광	오기영	오선태	오세인	오진록	오창수	오형호	왕기봉
우병철	위 성	위요섭	유용환	유재두	유재응	유주형	유창무	유희준	윤성훈	윤창훈	윤현기
은승표	이건우	이계형	이규승	이근일	이기용	이덕희	이도경	이동기	이동현	이동호	이동화
이득용	이봉진	이상재	이선우	이승림	이승헌	이승하	이영국	이영석	이영호	이원익	이은준
이의형	이인묵	이정구	이종봉	이현상	이호승	임경삼	임관수	임용찬	임인택	임태행	전철우
정도혁	정선균	정영률	정영석	정용진	정용호	정유진	정진모	정창훈	정홍근	조규정	조득만
조상열	조용근	조태연	지정규	채수성	최병무	최용수	최우성	최정기	최창혁	한경진	한길주
한 석	한수일	한영찬	허정필	홍성수	황성택	황재욱					



학회 회원 공지

1. 학회 홈페이지 회원정보 업데이트 요청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는 회원님들께 중요 안내사항 등을 문자, 이메일 및 수령을 원하시는 주소로 발송하고 있으나 누락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회원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홈페이지(www.koa.or.kr)에서 회원님의 변경된 정보를 수정 요청드리오니 로그인하시어 개인정보수정에서 회원님의 가장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바랍니다.

* 중요 업데이트 회원 정보

• 현재 소속병원 • 우편물 수신처 • 주소 • 이메일 주소 • 휴대전화번호

* 회원정보 수정은 홈페이지(www.koa.or.kr) 로그인 후 상단의 "MY PAGE"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매월 소식지에 안내되는 회원 동정란은 회원들의 경조사는 물론 회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소식을 게재하는 공간입니다. 소식 공지를 원하시는 경우 학회 이메일 ortho@koa.or.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학회 정기 간행물 발송 현황 안내

종류	발행 주기	발송 구분	우편 구독 비용
소식지	매월 말일	1) 회원 전체 이메일 발송 2) 만65세 이상 회원은 우편 및 이메일 발송	유료 구독 신청 불가
국문학회지(JKOA)	연 6회 격간 (2, 4, 6, 8, 10, 12월)	1) 회원 전체 이메일 발송 2) 만65세 이상 회원은 우편 및 이메일 발송 3) 유료 구독 회원 우편발송	연 48,000원
영문학회지(CIOS)	연 6회 격간 (2, 4, 6, 8, 10, 12월)	1) 회원 전체 이메일 발송 2) 유료 구독 회원 및 자문위원 우편, 이메일 발송	연 48,000원

* 유료회원은 우편발송 대상이 아닌 회원 중 우편료를 선납해 주신 회원입니다.

4. 대한정형외과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 개설

대한정형외과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 개설했습니다.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채널명 : 정형외과TV <https://www.youtube.com/@orthopedicstv>



제67대 집행부 각종위원회 운영보고

제1차 자문위원회(23.11.09)

- 1) 2024년도 신입 이사 및 각종 위원회 임원 승인
- 2) 춘·추계 학술대회 관련 자문
 - : 국제학술대회의 새로운 개최 장소 발굴 필요
 - : 학술대회 설문조사의 응답률을 높이고, 심도 있는 분석 필요
 - : 해외 초청연자 세션의 청중률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구성 방안 검토 필요

제1차 이사회(23.11.20)

- 1) 2024년도 신입 이사 및 각종 위원회 임원 승인
- 2) 2024년도 제67차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 자격 인준
- 3) 학회 홈페이지 개편 작업 인준
- 4) 12년마다 인천지회와 강원지회가 춘계학술대회를 독립 개최하는 것을 인준(2028년 인천지회, 2034년 강원지회 개최)

제1차 수련교육위원회(23.11.23)

- 1) 2024년도 전공의 수련실태조사 방문심사 대상 병원 선정
- 2) 온라인 전공의 수련실태조사서 작성기간을 통일하여 온라인, 방문심사 대상병원 모두 5월 중으로 작성 완료하기로 함
- 3) 2025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에 대한 토의

제1차 분과 및 관련학회 조정위원회(23.11.27)

- 1) 2024년도 분과 및 관련학회 학술행사 일정 조율
- 2) 2024년도 제68차 국제학술대회 분과 및 관련학회 해외연자 초청 요청
- 3) 2024년도 대한정형외과학회 연수강좌(ICL) 프로그램 제출 요청
- 4) 2024년도 춘계학술대회 기간 내 연수강좌 개설

제1차 학술위원회(23.11.30)

- 1) 2024년도 제68차 춘계학술대회 프로그램 세부 일정 논의
- 2) 2024년도 제68차 국제학술대회 진행 일정 논의

제1차 고시위원회(23.12.04)

- 1) 2024년 제67차 전문의 자격시험 멀티미디어 출제 가이드라인 관련 논의
- 2) 향후 전문의 자격시험 운영 방향에 관한 논의

제1차 보훈위원회(23.12.07)

- 1) 환자분류체계 개선 논의
- 2) 3차 상대가치 개편 논의(24.1.1 시행)
- 3) 필수의료 강화 논의
- 4) 도수치료 교육 관련 논의
- 5) MRI 급여화 및 판독료 신설

제1차 홍보위원회(23.12.11)

- 1) 2024년도 건강의 해 캠페인 슬로건 선정에 관한 논의
- 2) 정형외과 진료영역의 타과 침범에 관한 시정경고 가이드라인 마련
- 3) 정형외과 TV 유튜브 활성화 및 운영 방안 논의

제1차 기획 및 자산관리위원회(23.12.14)

- 1) 춘·추계학술대회 장소 장기예약에 대한 논의



JKOA 공지사항

1. 대한정형외과학회지는 현재 한국연구재단(구, 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되어 있는 학술지입니다.
2. 국문학회지 편집위원회에서는 영문으로 작성된 논문은 투고를 받지 않습니다. 영문 논문은 가급적 CIOS에 투고 부탁드립니다.
3. 국문학회지 편집위원회에서는 게재허가를 받은 심사 완료된 논문은 저자 변경이 불가함을 공지합니다.
4. 연구 윤리의 원칙에 저자 됨은 실제 연구 및 논문 작성에 기여해야 하나 본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들 중에 실제 연구 및 논문 작성에 기여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수 이상으로 지나치게 많은 저자들을 등록하는 경우가 있어 저자 수에 제한을 하고자 합니다. 종례 보고에는 4명 이하(전공의 1인) 원저에는 6명 이하(전공의 2인까지) 종설에는 3인 이하 제한된 수 이상 추가적으로 등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유서를 학회에 제출하여 편집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이들 등록된 저자 이외에 기여한 사람은 Acknowledgement에 넣습니다. 단, 다기관 공동 연구(Multi-center study) 등 상기 규정된 저자 수를 초과하는 인원이 논문에 등록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먼저 편집위원회의 허가를 득한 후 접수가 가능합니다.
5. 원고 투고 시 저자 고유식별 번호(Open Researcher and Contributor ID, ORCID) 입력은 필수사항입니다.
6. 대한정형외과학회지에 투고한 동일한 내용의 연구물을 국내외를 막론하고 타 학회지에 중복해서 투고하는 것은 대한정형외과학회 연구 윤리규정 제1절 제3항 “연구물의 중복 투고 및 게재 혹은 이중 출판 금지”의 위반이므로 이런 경우에 징계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7. 신속심사제도에 관하여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 심사는 정규 심사 과정이 기본이나 전문의 자격시험 기준 또는 지도전문의 자격기준 등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선별하여 신속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 아래 안내와 같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심사제도는 선별적으로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노력이며 “가급적 채택”이 아닙니다.
총 60일 이내의 심사 완료를 목표로 하지만 '수정 후 재투고' 판정 후에 재투고 기간이 늦어지면 60일 이내의 심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재투고 판정 시 투고 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전문의 자격시험 논문 기준의 사유로 신속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매년 8월 말까지만 신청을 접수받고 진행을 하며 수정 후 재투고가 늦어져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예정된 기한을 지킬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사유일 경우에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오니, 이 점 꼭 양지하시고 가급적 정규 심사과정을 통하여 학회지 논문 게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속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한정형외과학회 사무국에 전송(팩스 : 02-780-2767 또는 이메일 : ortho@koa.or.kr)하고 위원장의 타당성 승인 후 별도의 심사로 30만원을 학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속심사 시행이 심사위원의 논문 게재 허가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입금계좌 : 국민은행 269101-04-008077 대한정형외과학회)



CiOS 공지사항

대한정형외과학회 공식 영문 저널 Cios (Clinics in Orthopedic Surgery)가 SCI에 등재되었습니다. 그동안 우수한 논문 투고와 적극적인 논문 인용으로 힘써 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편집진은 앞으로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로 SCI 등재 유지는 물론 명실상부한 정형외과 대표 국제 저널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문학회지 편집위원장 김한수 배상

1. Cios는 현재 SCI, SCOPUS, PUBMED, MEDLINE, 한국연구재단(KCI)에 등재된 학술지입니다.
2.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자격 요건 중 Cios 또는 대한정형외과학회(JKOA)에 반드시 논문 한 편 이상 게재가 필수사항입니다.
3. 원고 투고 시 저자식별번호 ORCID No.를 반드시 표기하시고 연구비 지원 기관이 있는 경우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SCI 논문은 2019년 3월호(11권 1호)부터 적용되며 Journal Impact Factor™ (JIF)는 2022년 6월 부여되었습니다.
5. 2022년 7월 기준 Cios IF 지수는 2.503입니다.



학회 수련실태조사 평가 문항 중 정원책정지도 전문의 논문 점수 및 대상학회지 안내

• 지도전문의 논문 점수 대상 학회지 및 배점

1. 대한정형외과학회지(통합된 학회지 포함) 및 정형외과영문학회지(CiOS), SCI(E), Scopus 논문 중 원저와 증설은 2점, 증례보고는 1점을 부여하고, 관련 학회 학술지는 학술지의 질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점수를 인정한다.

1)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의 원저와 증설은 1점, 증례보고는 0.5점을 부여하고, 해당 학술지는 골절, 스포츠의학, 척추, 족부족관절, Archives of hand microsurgery(대한수부-미세수술 통합학회지), 견주관절, 류마티스, Osteoporosis and sarcopenia(구, 골다공증학회지), AOSM(대한정형외과스포츠의학회학회지) 학회지이다.

2) 기타 관련 및 분과학회지의 원저와 증설은 0.5점, 증례보고는 0.25점을 부여하며, 해당 학술지는 척추신기술학회 학회지이다. (기타 관련 및 분과학회지가 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가 될 경우 1점을 인정한다.)

3) Scopus에 등재된 저널은 SCI(E)와 동일하게 인정하기로 하다.

Scopus 등재된 관련학회 학술지 : Asian Spine journal, JBM(구, 골대사학회지), Knee Surgery and Related Research (구, 슬관절학회지), Hip and pelvis(구, 고관절학회지), The Journal of Hand Surgery(Asian-Pacific Volume)

4) SCI(E) 또는 Scopus에 등재되지 않는 해외학회지의 원저와 증설은 0.5점, 증례보고는 0.25점을 부여한다.

5) 정원책정 지도전문의는 당해 연도 1점 또는 직전 4년에 3점 이상의 논문 점수가 되어야 인정된다.

(1) 직전 4년 논문 점수 산출 시 이미 사용하였던 논문은 중복되게 사용하지 못한다.

(2) 당해 연도란 전년도 3월 1일 ~ 해당 연도 2월 말까지를 말한다.

• 2021년도 당해연도 :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말까지

• 2021년도 직전 4년 : 2017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말까지

2. 대한정형외과학회지 및 대한정형외과 영문 학회지(CiOS), SCI(E)는 당해 연도 기간 내에 채택(accepted) 되거나 E-pub 된 경우, 논문으로 인정한다.

3. 정형외과와 관련된 전문 서적 및 기타 학회지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수련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4. 제1저자 또는 통신저자는 전체 점수를 주고, 나머지 저자는 주어진 배점을 논문 작성자 수로 나눈 점수를 부여한다.

※ 통합 학회지의 논문 점수 인정에 관한 건

[JKOA와 통합 전 발간] 골관절종양학회지 1점

골연부조직이식학회지, 정형외과초음파학회지, 정형통증학회지, 정형외과연구학회지 0.5점

[JKOA와 통합 후 발간] 대한정형외과학회지와 동일한 점수로 인정

※ 통합학회 : 대한골관절종양학회, 대한골연부조직이식학회, 대한정형외과초음파학회, 대한정형통증학회, 대한정형외과 컴퓨터수술학회, 대한정형외과연구학회, 대한관절경학회, 대한운동계절기세포재생학회

※ Archives of hand microsurgery(대한수부-미세수술 통합학회지)의 경우 통합 전 수부외과학회지와 미세수술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점수는 다음과 같다.

[통합 전 발간된 논문 점수] - 대한수부외과학회지 : 원저&증설 1점, 증례보고 0.5점

- 대한미세수술학회지 : 원저&증설 0.5점, 증례보고 0.25점

※ SCOPUS 등재 시점에 따른 점수 안내

- JBM(구, 골대사학회지)의 경우 2019년 SCOPUS 등재되어 2019년 이전에 발간된 논문의 점수는 다음과 같다. [SCOPUS 등재 전 발간된 논문 점수] 원저&증설 1점, 증례보고 0.5점

- The Journal of Hand Surgery(Asian-Pacific Volume)의 경우 2018년 SCOPUS 등재되어 2018년 이전에 발간된 논문의 점수는 다음과 같다. [SCOPUS 등재 전 발간된 논문 점수] 원저&증설 0.5점, 증례보고 0점

- Knee Surgery and Related Research의 경우 2020년 5월에 등재되어 이전에 발간된 논문의 점수는 다음과 같다. [SCOPUS 등재 전 발간된 논문 점수] 원저&증설 1점, 증례보고 0.5점

- Hip and pelvis(구, 고관절학회지)의 경우 2021년 2월에 등재되어 이전에 발간된 논문의 점수는 다음과 같다. [SCOPUS 등재 전 발간된 논문 점수] 원저&증설 1점, 증례보고 0.5점



국내학술행사

1. 고려대학교 슬관절연구회 제10회 절골술(Cadaver Workshop)

• 일정 : 2024년 2월 4일(일)

• 장소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5층 실용해부실습실 및 강의실

• 문의 : Tel. 02-920-5924, E-mail, ky10326@naver.com

2. 대한정형외과 스포츠의학회 제42차 춘계학술대회

• 일정 : 2024년 4월 13일(토)

• 장소 : 세종대학교 대양AI센터(12층)

• 문의 : Tel. 062-220-3147, E-mail, office@kossm.or.kr

3. 대한정형외과학회 제68차 춘계학술대회

• 일정 : 2024년 4월 18일(목) ~ 20일(토)

• 장소 :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

• 문의 : Tel. 02-780-2765, E-mail, ortho@koa.or.kr

4. 명지병원 & 경희대학교병원 정형외과학교실 Shoulder Symposium

• 일정 : 2024년 5월 25일(토)

• 장소 : 양재 aT센터 세계로룸

• 문의 : Homepage, <https://shoulderrhee.modoo.at/?link=5ax5uxta>

5. Intercollegiate X-ray Conference 일정

년 도	개최 월일	병 원 명	년 도	개최 월일	병 원 명
2023	6월 8일	건국대병원	2024	3월 14일	한일병원
	7월 13일	서울의료원		6월 13일	삼성서울병원
	9월 14일	한국원자력의학원		7월 11일	보라매병원
	11월 9일	순천향대병원		9월 12일	중앙대학교병원
	12월 14일	국립중앙의료원		11월 14일	일산동국대병원

(매월 둘째 목요일 저녁 6 :00) (2022년 1, 2, 4, 5, 8, 9, 10, 12월 / 2023년 1, 2, 3, 4, 5, 8, 10월 / 2024년 1, 2, 4, 5, 8, 10, 12월 없음)

• 연락처 : Tel. 02-2072-2367~2368 / E-mail, minbom@naver.com (김민범 교수)

6. Interhospital Orthopaedic Conference (매월 첫째 수요일 18 :30) (3, 5, 7, 9, 11월 매년 5회 개최)

년도	횟수	개최일	병원명
2023년	제152차	3월 8일	광명성애병원
	제153차	5월 3일	이화여대목동병원
	제154차	7월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제155차	9월 6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제156차	11월 1일	연세사랑병원
2024년	제157차	3월 6일	용인세브란스병원
	제158차	5월 1일	세란병원
	제159차	7월 3일	아주대학교병원
	제160차	9월 4일	차의과학대학교분당차병원
	제161차	11월 6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개최 • 일정 : 3월, 5월, 7월, 9월, 11월 연 5회, 매월 첫째 수요일, 오후 6시 30분)

※ 사정상 변경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Tel. 02-2228-2180~2181 / E-mail, os@yuhs.ac

국제학술행사

1. 명지병원 제15차 Shoulder Cadaveric Workshop

- 일정 : 2024년 2월 23일(금) ~ 24일(토)
- 장소 : 태국, 방콕
- 문의 : Tel. 010-5577-9118

2. 대한족부족관절학회 IFFAS 2024

- 일정 : 2024년 5월 30일(목) ~ 6월 1일(토)
- 장소 : 서울 강남 코엑스
- 문의 : E-mail, info@iffas2024korea.com

모집공고

1. 한양대학교 교육협력 명지병원 정형외과 교원(전임, 임상) 모집

- 분야 및 인원 : 척추, 견주관절, 소아, 족부 및 외상
- 문의 : Tel. 031-810-5141, E-mail, kernels00@naver.com, syleemd@hanyang.ac.kr

2.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임상, 전임교원 모집

- 분야 및 인원 : 족부, 척추
- 문의 : Tel. 010-9735-0490, E-mail, jjh87@gmail.com

회원동정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김승호 회원(새로운병원) 빙부상
- 성승용 회원(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부친상
- 김병성 회원(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현수련교육위원) 부친상
- 김용식 회원(前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병원장) 모친상
- 정양국 회원(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모친상

회의실 대관 안내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의실 대관 안내드립니다. 회의실이 필요하신 회원께서는 아래 참고사항을 확인하시어 신청서를 학회로 송부하여 주시면 자세한 이용 안내 메일을 발송하여 드리겠습니다.

[참고] 대관 불가일 안내 (■은 예약 완료일입니다.)

❖ 2023년 12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2024년 1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2024년 2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자세한 내용은 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관 건축기금 모금 현황

▶대한정형외과학회 건축기금 모금 관련 안내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는 회원들의 교육과 연구활동 증진을 위한 회관 건축을 위해 2016년도부터 건축기금을 모금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3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모금된 건축기금에 대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왔으나 2018년 2월 13일 세법 개정으로 기존에 특별회비 및 비정액 기부금에 대해서 적용되던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학회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을 근거로 한 경비 비용처리(손금 처리)는 가능함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3년 11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번호	성 함	소 속	모금 날짜	입 금 액	누적금액
1	오진록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11월 27일	10,000원	890,000원
2	안길영	포항성모병원	11월 28일	50,000원	900,000원
현재 모금액 : 466,610,000원					

▶기부금 고액 기부자 명단

1. 건축기금(단체)

번호	단체명	소 속	기부액
1	서울대학교 정형외과교실	서울대학교	50,000,000원
2	연세대학교 정형외과교실	연세대학교	50,000,000원
3	전남대학교 정형외과교실	전남대학교	30,000,000원
4	한양대학교 정형외과교실	한양대학교	30,000,000원
5	건국대학교병원 정형외과교실	건국대학교	27,500,000원
6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20,000,000원
7	대구파티마병원 정형외과	대구파티마병원	15,000,000원
8	전북대학교 정형외과교실	전북대학교	10,500,000원
9	경북대학교 정형외과교실	경북대학교(3년간 3천만원 약정)	10,000,000원
10	고려대학교 정형외과교실	고려대학교	10,000,000원
11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10,000,000원
12	대한척추종양학회	대한척추종양학회	10,000,000원
13	제일정형외과	제일정형외과병원	10,000,000원
14	경상대학교 정형외과교실	경상대학병원	8,000,000원
15	순천향대학 천안병원	순천향대학교	5,000,000원
16	한양대학교 정형외과 동문회(한정회)	한양대학교	5,000,000원

2. 건축기금(개인)

번호	성 함	소 속	기부액
1	박근호 회원	전주고려병원	24,000,000원
2	고용곤 회원	연세사랑병원	10,000,000원
3	김용욱 회원	라파메디앙스정형외과의원	10,000,000원
4	박종호 회원	부산센텀병원	10,000,000원
5	서동원 회원	바른세상병원	10,000,000원
6	신규철 회원	제일정형외과병원	10,000,000원
7	손부홍 회원	(구)손부홍정형외과의원	10,000,000원
8	김기택 회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7,200,000원
9	정영복 자문위원	현대병원	5,000,000원

3. 학회지 발전 기금

번호	성 함	소 속	기부액
1	이춘실 교수	숙명여대 문헌정보학	20,000,000원

타인 처방전 교부받아 투약 후 급성신장손상 발생 주장하는 사례

이한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전체 진료과목 중 가장 많은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를 보이고 있는 정형외과에 대한 의료중재원 감정사례를 대한정형외과학회 소식지에 연재함으로써 정형외과 의료사고 예방 및 의료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사건개요]

고혈압과 당뇨병, 협심증, 신장결석의 기왕력이 있는 신청인은 피신청인의원에서 요통과 어깨 통증으로 물리치료 등을 받고 진통제, 근이완제 등의 경구약 처방을 받았으나 타인의 처방전을 잘못 받았고 약국에서도 타인의 약 그대로 지급받아, 처방된 약이 아닌 마그네슘정(250mg)을 하루 3회 3일간 복용하게 되어 설사, 구토 증상이 발생하여 투약을 중단하였으나 5일 뒤 급성신부전 및 무뇨 증상으로 신장결석과 요관결석으로 인한 급성신장손상 진단받고 경피적 배액술, 신요관 결석 제거술 등을 받게 된 사례.

[치료과정]

고혈압, 당뇨, 협심증과 2017년 신장결석(2017년)으로 치료받은 과거력이 있는 신청인(남/60대)은 2022년 6월 허리 통증으로 피신청인 1(□□□의원) 내원하여 소염진통제, 근이완제 처방받았으나, 처방전 오 지급으로 다른 환자의 처방전을 받게 되었음. 오 지급된 처방전을 가지고 방문한 피신청인 2(△△△약국) 방문하여 '산화마그네슘정 250mg 하루 3회 30일분'을 교부 받았음. 잘못된 약을 복용한 지 3일 차에 설사, 구토 증상이 발생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 1, 피신청인 2에 방문하여 처방전 오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약물 복용 중단하였음. 신청인은 복용 중단하고 5일 경과 후 급성 신부전, 무뇨, 핏뇨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 응급실 내원, 응급투석을 위해 ▲▲▲병원으로 전원 되어 다량의 양측 신장결석 및 요관결석 진단받고 경피적 배액술, 신요관 결석 제거술, 체외 충격파 쇄석술 등 시행 받았고 현재까지 입·퇴원 치료 반복하며 외래 경과관찰 중임.

[분쟁 쟁점]

환자 측: 피신청인 1(□□□의원)과 피신청인 2(△△△약국)의 과실로 처방전이 잘못 교부되고 다른 환자에게 투여될 약을 복용하게 되어 급성 신장손상과 만성 신부전 증상이 발생하였음.

병원측(피신청인1): 처방전 오교부로 인한 마그네슘(MgO) 복용으로 발생한 요관결석, 급성신장손상, 만성신부전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움.

약국측(피신청인2):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 명의가 여자였고, 조제된 약물을 받은 사람도 여자(신청인의 배우자)였으므로 처방전이 잘못 교부되었다는 것을 알 방법이 없었음.

[감정의견]

가. 과실유무

처방 및 투약의 적절성

신청인은 6월 중순 요통과 우측 어깨 통증을 주소로 피신청인 1 의원에 내원하여 물리치료를 받고 같은 증상으로 신경근 차단술과 레이저 치료를 받음. 이후 표층 열 치료와 레이저 치료를 시행하고 경구약 처방(소염진통제, 근이완제 및 위장보호제)을 받았으나, 신청인에게 타인의 처방전(산화마그네슘정)이 전달되었음. 그러므로 처방 자체는 적절하나 신청인에게 처방전 전달과정상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있음. 하지만 처방전에 타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확인을 안 하고 처방전을 받은 점을 미루어 보아 양측 모두에게 잘못의 여지가 있다고 검토됨.

타인의 이름으로 명시된 처방전에 따라 약을 투여하였으므로 그 과정이 적절하다 할 수 없으나, 타인의 이름을 부르며 약품을 지급하였다면 약품 수령인(신청인의 처)이 확인 안 한 점을 미루어 보아 양측 모두 잘못의 여지가 있다고 검토됨.

나. 인과관계

급성 신부전, 신요관 결석 제거술의 원인

잘못된 약 복용 중단 후 급성 신부전 증상으로 내원한 ●●●병원의 X ray(KUB) 와 복부 CT상 다량의 양측 신장과 요관결석에 의한 요관의 폐색이 관찰됨. 그러므로 신청인에게 발생한 급성신부전은 기저 질환인 신장과 요관결석에 의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요관과 신장결석 제거술도 이에 따라 시행한 것이고 산화마그네슘정 3일 복용이 원인이 되어 급성신부전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검토됨.

다. 종합소견

피신청인 1(□□□의원)의 소염진통제, 근이완제 및 위장보호제 등의 처방 자체는 적절하나 처방전 전달과정에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처방전에 타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확인을 안 하고 처방전을 받은 점을 미루어 보아 양측 모두에게 잘못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됨. 피신청인 2(△△△약국)은 타인의 이름으로 명시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여 지급하였으므로, 그 과정이 적절하다 할 수 없으나 타인을 호명하며 약품을 지급하였다면 수령인인 신청인의 배우자가 이를 확인 안 한 점을 미루어 보아 양측 모두에게 책임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됨. 신청인에게 발생한 급성신부전은 기저 질환인 양측 신장 및 요관결석에 의한 요관 폐색이 원인일 가능성이 가장 크며 요관과 신장결석 제거술도 이에 따라 시행한 것이고, 산화마그네슘 3일간 복용이 원인이 되어 급성신부전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검토됨.

[조정결과]

본 건은 조정합의 되었음.

[예방 Tip]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기준 중 환자안전 보장 활동은 급성기병원과 요양병원 모두에서 매우 중요한 항목이며 이중 환자 확인 절차는 환자안전 보장 활동에서 첫 번째로 다루고 있음. 환자 확인은 개방형 질문으로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지표 (예: 이름, 생년월일 등)를 사용하여야 하며 확인이 필요한 시점은 의약품투여, 혈액 투여, 검사, 진료, 처치, 시술 전으로 되어있음. 본 건은 처방전 전달과 약품 전달과정에서 환자 확인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이며 의료기관 내 환자 처치과정 중 원내 지침에 따라 환자 확인을 정확히 하여야 이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됨.



동양고전산책(東洋古典散策)

김인권 (한국 한센복지협회 회장)
(서울 에스병원 병원장)

14 察見淵魚 (찰견연어:연못 속의 고기를 잘 보는 사람)

춘추시대 췌(진)나라에 몇 년을 계속해서 기근이 들자 도적들이 들끓기 시작했다. 荀林父(순림보)가 나라 안에서 도적을 譏察(기찰)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던 중 한 사람을 얻었다. 郤氏(극씨) 종족 사람으로 이름은 雍(옹)이라 했다. 이 사람은 도적을 구별해 내는데 특별한 재주가 있었다. 어느 날 순림보가 극옹과 함께 시정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가 어느 한 사람을 도적이라고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순림보가 부하를 시켜 잡아다가 심문한 결과 과연 도적이었다. 순림보가 물었다. '어떻게 그가 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가?' '제가 그 사람의 미간을 살펴보니 시중의 물건을 탐하는 기색이 역력했고 거리의 사람들과 마주칠 때마다 얼굴에 부끄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내가 왔다는 소리에 얼굴에는 무서워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극옹은 돌아다니며 매일 도적 수십 인을 잡아들였다. 시정의 도적들이 모두 무서워하였으나 그 수는 오히려 더욱 많아졌다. 대부 羊舌職(양설직)이 순림보를 찾아와 말했다. '원수께서 극옹을 시켜 도적을 잡게 하고 있는데 도적들이 아직도 다 잡히지 않아 이로 인해 극옹은 죽을 때가 임박한 듯합니다.' '무슨 이유에서 입니까?' '옛말에 연못 속의 물고기를 잘 보는 자에게는 상서롭지 못한 일이 생기고 남의 비밀을 잘 알아내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따른다(察見淵魚者不詳, 知料隱匿者有殃)고 했습니다. 극옹 한 사람만의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도적들을 다 잡을 수 없고, 오히려 도적들이 힘을 합쳐 극옹을 해치려 한다면 어찌 죽음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 있는 지 3일이 지나지 않아, 우연히 교외에 나가게 된 극옹을 도적 떼 십여 명이 힘을 합쳐 공격해 죽이고 그 머리를 잘라 가 버렸다. 순림보도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병이 나서 죽고 말았다.

진경공은 양설직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불려서 물었다. '경은 극옹이 당할 일을 미리 헤아렸소. 그러면 도적을 없애는 대책도 알고 있고 있을 것이오.' 양설직이 말했다. '피를 피로 제어하는 방법(以智禦智)은 마치 바위를 풀 위에 눌러 놓는 것과 같습니다(用石壓草). 바위로 눌러둔 풀은 반드시 바위틈 사이로 자라서 올라오게 됩니다(草必罅生). 그리고 폭력을 폭력으로 제압하는 방법(以暴禁暴)은 마치 돌맹이로 돌맹이를 부수는 것(用石擊石)과 같아 두 돌맹이는 모두 부서지고 맙니다. 고로 도적을 없애는 방법은 그 마음을 바르게 만들어 염치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化其心術 使知廉恥). 도적을 많이 잡기만 하는 것은 능사가 아닙니다. 주군께서는 조정에서 마음이 선량한 사람을 찾아 그들을 영예롭도록 하여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하면 선량하지 않은 사람

들도 스스로 감화되어 바르게 살고자 할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찌 도적 때문에 골치를 썩이는 일이 있겠습니까?' 진경공이 말했다. '지금 우리 진나라에서 마음이 가장 선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오? 경이 천거해 주기 바라오.' '士(사회)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회는 말에 믿음이 있고(言依於信), 행함에 옳음을 따르며(行依於義), 부드럽되 비굴하지 않고(和而不諂), 청렴하되 교만하지 않고(廉而不矯), 강직하되 도도하지 않고(直而不亢), 엄하되 사납지 않습니다(威而不猛). 주군께서는 반드시 그를 등용해야 합니다.' 진경공은 사회를 순림보가 죽여 공석 중인 진의 중군원수의 뒤를 잇게 하고 더하여 세자를 위하여 태부의 직도 행하도록 명했다. 사회는 范(범) 땅에 봉해져 그는 범씨의 시조가 되었다. 사회는 도둑을 잡기 위한 형법의 조항들을 모두 없애고 백성들을 교화하여 선민이 되도록 권장했다. 그때부터 간악한 무리는 모두 서쪽 秦(진)나라로 도망가고 췌(진)나라에는 도적이 한 명도 없게 되었다. 진나라는 치세를 맞게 되었다.

도적을 잡아서 벌을 주고 일반인들과 격리함으로써 벌 받는 것이 두려워서 도적질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法家(법가)적인 생각이다. 그러나 사회를 정화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도적질이 부끄러운 짓이란 것을 알게 교화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선한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은 儒家(유가)적인 생각이다. 형벌을 무겁게 하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 죄를 짓지 않고 나라의 정한 규율을 반드시 따르게 하는 상양의 법가사상은 진나라 효공이 채용하여 빠른 시일에 진나라를 강하게 만들었고 그 뒤를 이은 진시황은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전국시대의 여러 나라들은 경쟁적으로 유능한 刑名(형명) 학자들을 채용하여 강한 군대를 보유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통일된 진나라는 진시황의 사후 14년 만에 어이없이 붕괴된 것에 대하여 여러 학자들이 연구 검토하였고 그 결과 법가적인 강압통치보다는 백성들을 인의로 교화하여 사회를 건전하게 하여야 국가가 오래 지속된다는 유가적인 사상을 채용하게 되었다.

양혜왕(위혜왕으로 진의 침입으로 大梁: 대량으로 도읍을 옮겨 그 후에 양혜왕이라고 불렸다)이 말하였다: '나의 나라 鄆國(진국: 실제로 魏: 위나라. 요즘 출토된 유물로서 당시 위나라를 진국이라고 불렀음이 확인된다.)이야말로 천하에 이처럼 강한 나라가 없다는 것은 선생께서도 잘 아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과인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동쪽으로는 제나라에 패하였고 장남이 전사하였습니다.(BC341년의 마릉전투에서 위나라 장군 방언이 제나라 군사 손빈에게 패하여 죽고 태자 신이 포로가 되었다.) 서쪽으로는 진나라에게 700리 땅을 잃었고, 남쪽으로는 초나라에 굴욕을 당하였습니다. 과인은 진실로 이를 치욕으로 생각합니다. 원컨대 죽은 동포들을 위하여 설욕해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노선생이시여, 어떻게 하면 제가 죽기 전에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시었다. '왕이시여! 땅을 빼앗긴 것은 걱정할게 못됩니다. 땅이 사방 백 리만 있어도 임금의 직분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왕께서 인정을 베푸시어, 형벌을 감형하고, 부세를 경감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땅을 깊게 갈고 제때에 일찍 제초를 하여 비를 기다릴 수 있게 하며, 또한 장성한 청년들이 농사의 여가가 생기기만 하면 효, 제, 충, 신의 덕성을 닦아, 집에 들어가서는 부모 형제를 잘 섬기고 나와서는 윗어른들을 잘 섬기도록 하게만 한다면 전쟁이 난다 하더라도 백성들은 모두 나무 몽둥이라도 치켜들고 나아가 진나라 초나라 병사들의 견고한 갑옷이나 예리한 무기를 모조리 쳐부수고 말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진나라나 초나라에서는 백성들을 시도 때도 없이 부려먹으니 밭을 깊게 갈고 김매어 부모를 봉양하는 일이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돌보는 자식없는 부모들은 얼고 굶주리고, 형제와 처와 자식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그 나라에서는 인민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을 뿐이니, 이런 상황에서 왕께서 나아가 정벌하신다면, 사람들이 모두 왕께 귀순하고자 할 텐데 감히 누가 왕께 대적하오리이까? 옛말에 仁者無敵(인자무적: 어진사람에게는 적이 없다.)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부디 의심치 마소서! 부디 왕도를 실천하소서!(맹자 양혜왕 상편 5장)

그러나 양혜왕은 전국시대의 현실과 잘 맞지 않고 시간이 많이 드는 맹자의 건의를 따르지 않았다.

孔子(공자)는 '백성들을 정치 법령으로 이끌고 형벌로 단속하면 백성들이 처벌을 면하려고만 하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도덕으로 인도하고 예절로 단속하면 백성들이 부끄러움을 느껴서 더욱 바르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老子(노자) 또한 '고상

한 덕을 지닌 자는 스스로 덕이 있다고 과시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덕을 지니게 된 것이다. 하찮은 덕을 지닌 자는 그 덕마저 잃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진실한 덕을 지닐 수 없다'. '법령이 세밀해질수록 도덕은 그만큼 더 많아진다.' 고 말했다.

태사공(사마천)은 말한다. '이런 말들은 참으로 옳은 말씀이다. 법령은 정치의 도구이기는 하지만 백성들의 옳고 그름을 다스릴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아니다. 옛날 秦(진)나라 시대의 경우만 하더라도 천하의 법망이 그렇게 치밀할 수가 없었건만 간사함과 거짓이 싹트기 시작하자 결국에는 관리가 책임을 회피하고 백성들은 교묘하게 법망을 벗어나 더 이상 구원할 수 없게 되어 망국의 길을 걷게 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러한 때에 관리들은 마치 장작을 안고 불을 끄려 하고, 물이 끓어 넘치는 것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불을 끄으로써 물이 더 이상 끓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끓는 것을 막으려고 끓는 물을 퍼냈다가 다시 그 물을 붓는 것처럼 정치를 했으니(救火揚沸: 구화탕불), 만용스럽고 혹독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찌 그 임무를 견디어 내며 즐거워할 수가 있었겠는가? 도덕을 운운하는 사람들도 다만 그 직무에 빠져 있을 따름이었다. 고로 '송사를 처리하는 것은 나도 남과 다를 바가 없으나, 반드시 처음부터 송사가 일어나지 않게 한다.' 고한 공자의 말씀이나 '저속한 선비가 도를 들으면 그저 크게 웃기만 한다.' 고한 노자의 말씀은 결코 헛된 말이 아니다. 漢(한)나라가 일어나자 高祖(고조)는 가혹한 형벌을 없애고 법을 간단하게 했고, 번다한 것을 버리고 소박한 것을 취했는데, 법망을 배를 삼킬 만한 큰 고기도 빠져나갈 수 있을 만큼 너그럽고 간략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관리의 다스림은 순박하고 인정이 두텁게 되었고, 백성들도 모두 태평무사한 생활을 영위하게 되었다. 이상의 사실을 미루어 보아 백성을 다스리는 근본은 도덕에 있는 것이지 가혹한 법에 있는 것은 아니다.(사기 흑리열전서문)

酷吏(흑리)는 가혹하거나 혹독한 관리를 뜻한다. 사마천의 사기 흑리열전에 나오는 前漢(전한) 전기의 흑리들은 한결같이 냉혹하고 방자하고 위세 부리기를 좋아했다. 이들은 법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 법을 무자비하게 시행하였다. 특히 고관이나 귀족이라도 한번 걸려들면 가차 없이 처벌하여 위세를 떨쳤다. 흑리들은 군주의 속마음을 살피고 이를 잘 따랐으므로 유능한 것으로 인정받아 출세기도 달랐다. 사람들을 해치는 일을 서슴지 않아 주변 사람들은 이들을 보면 제대로 서있기 어려울 정도로 떨었다고 한다. 汲黯(급암)과 흑리열전에 흑리 중 한 사람으로 나오는 張湯(장탕)은 한무제의 중신으로 서로 그 지향하는 성향이 대조적인 사람이다. 급암은 黃老(황로)의 학설을 배워서 관리와 백성을 다스림에 조용한 것을 좋아하였으므로, 郡丞(군승)과 書史(서사)를 뽑아서 일을 위임하였다. 그의 정치는 큰 원칙을 지키를 요구할 뿐 사소한 일에는 가혹하지 않았다. 급암은 자주 장탕과 논쟁을 벌였는데, 장탕은 말재간이 있어서 옹의주도하고 법령에 대하여 깊이 세밀한 곳까지 들어서 설명하였고 급암은 정치 이념의 입장에 서서 대항했기 때문에 급암이 물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되면 급암은 성이 나서 장탕을 매도했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기를 하찮은 刀筆吏(도필리)를 공경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만약 장탕의 법을 실행하여야 한다면 천하 사람들은 두려워서 꿈쩍달짝 못하고 서 있게 하며,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결눈질하는 처지가 되겠구나'

'刀筆吏(도필리)'는 종이 발명되기 전 죽간에 쓴 글에 오탈자가 났을 경우에, 그 글자 부분을 칼로 긁어내 삭제하는 일을 맡은 衙前(아전; 하급 관리)을 칭하였다. 뒤에 소송을 하는 사람으로 불렸다. 그 이름으로 뜻을 생각해 보면 법률의 규칙을 깊이 고민하고, 글(文筆)은 날카롭고, 글(붓)을 사용함이 칼과 같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주 도필리는 칼처럼 붓을 조종하고, 가끔 조작으로 사건을 뒤집거나, 없던 것을 만들어 내거나, 혹은 큰일을 작게 하거나, 작은 일로 마무리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나중에는 형정을 다루며 법률을 교묘하게 적용해 사람들을 곤경에 빠지게 하는 사람을 비하하여 부르는 명칭이 되었다.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사는 사회에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법과 규정이 필요하다. 사회가 더욱더 복잡하게 발전할수록 모든 상황을 담기 위해서 법과 규정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무척 세밀해진다. 그렇다면 우리가 완벽한 법을 보유하게 된다면, 사회는 완전해질 수 있을까? 사마천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다. 사람을 다스림에 있어 법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며 그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고 사람들을 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 법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이 바라는 대로 운용되지 않고 악용이 된다면 그 폐해는 사람들을 더 괴롭히는 구실이 된다. 이에 韓非(한비)는 세 명의 법가사상을 종합하여 법가사상을 체계화했다. 상앙에게서는 법치를, 신불해에게서는

권모술수를 이용한 통치술을, 조나라 사람으로 법은 물론 勢(세), 즉 권세를 중시한 신도에게서는 절대 권력의 필요성을 수용했다. 그리하여 한비는 모든 정치적 행동과 백성들의 행동 기준이 되는 엄격한 법을 제정하고, 절대 권력을 가진 통치자인 군주에게는 법을 시행하는 관리를 제어할 수 있는 治術(치술)이 있어야 한다는 학설을 세웠다. 즉, 군주가 나라를 다스릴 때 필요한 기본을 법, 술, 세로 정리한 것이다. 엄격한 법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시행하는 법관을 감독 제어할 능력을 가진 군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군주에게 법을 왜곡 운영하여 겉으로는 강직한 것 같지만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한 무제때의 장탕과 같은 흑리가 생기게 된다.

일반인들이 잘 알 수 없는 복잡한 법령을 가진 현대사회에서는 법리를 명쾌하게 해석하여 죄 있고 없음을 이분적으로 갈라치는 법률가들이 사람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대중의 인기를 얻어 공직자로 나아가는 빈도가 많아졌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죄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구분하게 되며 그 사람의 참모습은 보려고 하지 않는다. 또 더욱이 법률가들은 한 가지 쟁점에 대하여 서로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교묘한 법리를 채용하여 서로 다른 논리를 제시하기도 한다. 그런 법률가들의 상반된 주장을 듣다 보면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은 것 같아 오히려 판단이 흐려진다. 많은 법률가들이 정치에 참여하면서 모든 문제를 새로운 법을 만들어 해결하려 들고 발생하는 사회 현상을 법으로만 해석하고 해결하려는데 때로는 그들의 이런 태도는 민심의 정곡을 보지 못하고 민심과 이반 되는 결론을 얻기도 한다.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을 법을 만들고 법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에는 한계가 있다. 긴 안목을 가지고 도덕으로 인도하고 예절로 단속하여 백성들이 부끄러움을 느껴 선한 분위기가 공기처럼 퍼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엄격하게 법에 저촉이 되는지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의 논쟁보다는 조금 어수룩해 보일지 몰라도 인정과 배려가 넘치는 사람의 협상과 중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질도가 장탕을 두고 한 말 '천하 사람들이 刀筆吏(도필리)를 公卿(공경)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가 실감이 간다.

1. 학생교과서 [근골격의학] 출간안내

의과대학 학생들을 위한 “필수정형외과학” 초판이 출간된 지도 벌써 19년이 지났으며 제2판이 출간된 지도 7년이 지났습니다. “필수정형외과학”이 그동안 정형외과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교과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정형외과학에는 비단 수술을 위주로 하는 분야뿐만 아니라 척추와 사지의 골다공증, 류마티스 질환, 퇴행성 질환, 감염성 질환 같은 다양한 내과적 치료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책의 명칭을 “근골격 의학” “Textbook of Musculoskeletal Medicine”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동안 의학이 여러 방면에서 발달하는 가운데 정형외과학의 발달도 눈부신 것이었습니다. 의공학과 연관된 재료학과 각종 기기의 개발, 내시경수술 등 새로운 수술 기법의 발전은 실로 놀라운 것이며, 현재에도 끊임없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형외과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러한 빠른 발전을 따라잡기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근골격 의학”은 이러한 학문의 발전을 모두 포함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대한 정형외과학 교과서를 한두 사람이 모두 기술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특히 담당하는 분야가 전문화와 세분화가 되어 있는 요즘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생 교과서 편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전국 의과대학의 저명한 교수님들께 전공 분야별로 집필을 의뢰하여 이를 편집하여 2년 동안의 꾸준한 준비를 거쳐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골격 의학”이 외국의 우수한 교과서들에 비해 손색없는 것으로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향후 더욱 보완과 개선을 하여 보다 더 훌륭한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해 보면서 독자들의 질책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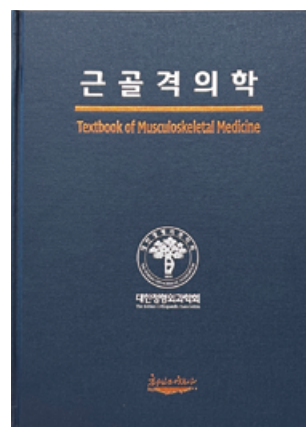
끝으로 이 책을 출판하기까지 원고를 써 주신 여러 저자들과 수정과 보완을 하여 주신 대한정형외과학회 편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많은 원고를 정리한 편찬위원회 간사인 이화대학교 유재두 교수와 최고의 책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최신헌 박사 엄철 사장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4월
편찬위원장 이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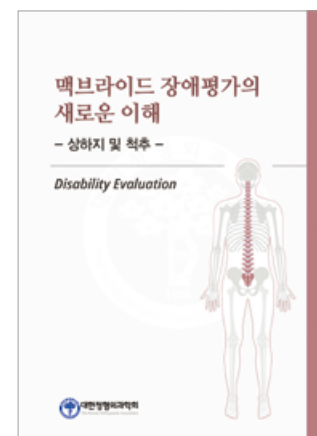
■ 주요분야

해부학, 병리학, 생리학, 근골격계 영상의학, 재활, 골관절의 감염, 관절염, 신경, 근육 및 혈관 질환, 척추 질환, 건관절, 수부 및 주관절, 고관절 병변, 슬관절 병변, 족관절 및 족부병변, 선천성 및 발달성 소아질환, 전신적 질환, 외상, 정형외과적 치료원칙, 중앙, 근골격계 통증관리, 노인의학

- 구입 : 최신헌 박사(Tel. 02-2263-4723)
- 가격 : 80,000원



2. 맥브라이드 장애평가의 새로운 이해 -상하지 및 척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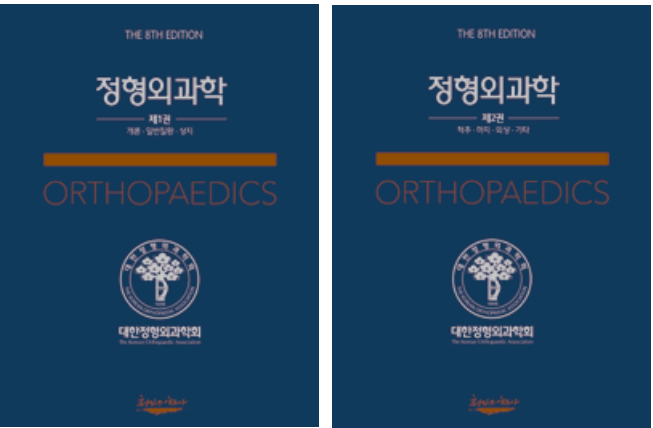
- 판매처 : 대한정형외과학회 (Tel. 02-780-2765, Fax. 02-780-2767, E-mail. ortho5@koa.or.kr)
- 가격 : 70,000원 (회원가 30,000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269101-04-008077 (예금주 : 대한정형외과학회)

맥브라이드 장애평가 방법 관련하여 수정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는 맥브라이드 장애평가 방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2020년 10월에 “맥브라이드 장애평가의 새로운 이해”라는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장애 정도를 추정하는 것은 상 소견 외에도 사회적 여러 여건을 반영해야 하므로 단지 의학적 기준만으로 정답을 제시할 수 없으며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절충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 판정 안을 현실에 맞게 개선함에 있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존 안과 너무 차이가 크면 사회적 저항 또한 증가함으로 개선은 점진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학회에서 발간한 “맥브라이드 장애평가의 새로운 이해”라는 책자는 현재 법원을 비롯한 많은 배상 관련자들이 관심을 갖고, 인용하는 경우도 점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회원분들께서도 장애인단체 발부 시 “대한정형외과 학회에서 2020년에 발간한 “맥브라이드 장애평가의 새로운 이해”라는 책자에 의하면…….” 과 같은 형식으로 인용 근거를 명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장애평가는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주어진 사회적 소명입니다. 회원분들께서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맥브라이드 장애평가의 새로운 이해”라는 책자를 참고하시면서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내용은 학회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해 주신 내용은 장애인위원회에서 논의 후 합리적으로 보완하여 다음번 개정판 발간 시 반영하도록 할 것이며 학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장애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서 여러 정형외과 회원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 주실 곳 : 대한정형외과학회 E-MAIL: ortho@koa.or.kr

3. 제8판 개정판 정형외과학 교과서 발간



- 구입 : 최신의학사(Tel. 02-2263-4723)
- 가격 : 360,000원

제8판은 정형외과학 전문적인 최신 지견을 담고 도표와 증례 또한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제7판에 비해 20% 이상 증가된 218페이지로 제8판 정형외과학은 전공의 및 근골격학을 공부하는 의료인들에게 풍성하고 업데이트된 지식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4. 정형외과학 용어집 제3판

- 가 격 : 50,000원
- 구입문의 : ortho@koa.or.kr

5. 「장애판정기준」- 사지및척추분야 제2판 -2012년 발간

- 가 격 : 회원 15,000원 / 비회원 30,000원
- 구입문의 : ortho@koa.or.kr



대한정형외과학회 캠페인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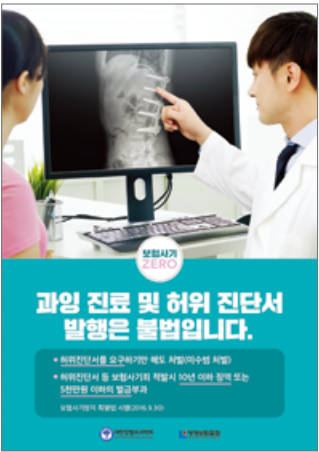
| 대한정형외과학회 홍보 슬로건 |



| 7가지 생활수칙 캠페인 포스터 |



| 허위진단서 근절 캠페인 포스터 |



홍보슬로건과 캠페인 포스터가 필요하신 분은 학회 이메일(ortho@koa.or.kr)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환별 팜플렛 안내



팜플렛 제작 중단 및 할인 판매 안내

-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는 질환별 팜플렛 총 29종을 제작하여 회원 여러분께 원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원가 물가상승과 인건비 증가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100부당 20,000원(면세가)으로 단가가 인상되오니 회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팜플렛 구매 신청은 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소식지 안내를 참고하시어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학회 이메일(ortho@koa.or.kr) 또는 팩스(02-780-2767)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구매 수량은 종류별 100부 단위로 판매합니다.
- 입금 계좌 정보 : KB국민은행 269101-04-008077 (예금주 : 대한정형외과학회)
- * 계산서 발행을 위해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팜플렛은 50% 할인하여 구입 가능합니다.
- ※질환별 팜플렛은 현재 제작된 재고 소진 시 판매중단 예정입니다. 팜플렛 제작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골보호효과 확인^{1,i}

장기투여 효과 확인^{1,2,ii}

안전성 프로파일 확인^{1,2}

제품요약정보³⁾

전문의약품

【제품명】조인스정200mg 【원료약품 및 그 분량】이 약 1정 중 조인스정 유효성분: 위경선-광루근-하이드로코르티손(40→1)(별규) ...200mg 【효능·효과】골관절증(퇴행관절질환), 류마티스관절염의 증상 완화 【용법·용량】성인 : 1회 1정을 1일 3회 경구투여한다.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1.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감염상태 또는 감염의 원인이 있는 환자(감염에 대한 자체 저항력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해야 하며, 이런 경우에는 감염의 진행을 억제하는 처치를 취해야 한다.) 2)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 (후략) 【제조자】에스케이케미칼(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단로 149 【판매자】에스케이케미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10 2011. 3. 21. 개정

※ 처방하시기 전 제품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십시오. 최신 허가사항에 대한 정보는 '식품의약품 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https://nedrug.mfds.go.kr/index>)'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1. Joong Il Kim et al. Efficacy of JOINS on Cartilage Protection in Knee Osteoarthritis: Prospective Randomized Controlled Trial, knee surg relat res, 2017 sep 1;29(3):217-224. 2. 조인스정 의약품 재심사 보고서 (2001.7.10~2005.7.9), Data on file SK 케미칼, [Updated 2005.10.07] 3. 조인스정 허가정보, 의약품안전나라 [Cited 2023.01.20] Available from: <https://nedrug.mfds.go.kr/>

i) [조인스정의 4상 임상연구] 1년(시험 연장 참여 동의자의 경우 2년)의 RCT 연구에서 무릎 골관절염 환자 76명을 대상으로 MRI를 이용하여 조인스정과 위약의 연골보호효과를 비교하였음.

ii) 조인스정의 4상 임상 결과 상 2년 장기투여 대상자를, 4년간의 시판후 조사결과 상 6개월 이상 장기투여(184명, 전체의 3.09%) 대상자 포함하였음.

국·내·신·약

Resyno® OME_[inj.]

1회 투여로 6개월간 지속되는 무릎관절용 히알루론산 주사제

지속성 향상
Enhanced Longev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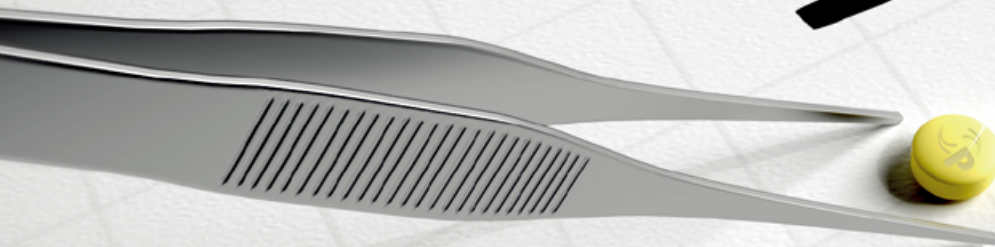
주입감 향상
Easy Procedure

윤활작용 향상
Improved Lubrication

레시노원® (D) (다비닐설폰으로 가교결합된 히알루론산나트륨염과 히알루론산나트륨염의 4:1 w/w 혼합제) **제품요약정보** 【원료약품 및 그 분량】1프리필드시린지(2ml/리터) 중 • 유효성분: 다비닐설폰으로 가교결합된 히알루론산나트륨염과 히알루론산나트륨염의 4:1 w/w 혼합제(별규) 2.04g (히알루론산나트륨으로서 40mg) / 첨가제: 염료주사침 【효능·효과】슬관절의 골관절염 【용법·용량】성인 : 1회, 1관절 슬관절내에 투여하나, 증상에 따라 투여 간격(6개월 이상)을 고려하여 적절히 투여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및 이 약의 구성성분에 대해 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 2) 투여 관절腔에 감염 또는 심한 염증이 있는 환자 3) 투여부위의 피부에 감염 또는 피부질환이 있는 환자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다른 약물에 대해 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 2) 간장애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3. 이상반응 1) 이 약과 관련된 중대한 이상반응은 발현되지 않았다. 2) 무릎관절염 환자 대상 시노비안주를 대조군으로 한 이 약의 임상시험(Y_YD302_003)에서 관절腔 투여에 따른 주사부위 이상반응 발현빈도는 이 약 1차 투여 후 48.42%(46/95 명), 제 2차 투여 후 47.27% (26/55 명)이었다. 중증 이상반응은 부종(어음) (이 약 9.47%, 이 약 제 2차 투여 후 7.27%), 흉부 (6.32%, 이 약 제 2차 투여 후 3.64%), 통증 (이 약 3.16%, 이 약 제 2차 투여 후 12.73%)순으로 보고되었다. 이 약 투여 후 7일 이상 지속된 주사부위 이상반응은 통증 5.26%, 열감 3.16%, 부종(어음) 1.05%였으며, 모두 특별한 조치 없이 14일 이내에 소실되었고, 제 2차 투여 후에는 통증 10.91%, 부종(어음) 5.45%, 열감 3.64%, 흉부 1.82%이었고, 모두 특별한 조치 없이 소실되었다. 4. 일반적 주의 1) 변형성골관절증으로 관절腔 염증이 심한 경우는 이 약의 투여에 의해 국소염증 증상의 악화를 초래할 수가 있으므로 염증증상을 제거한 후 이 약을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이 약의 투여로 매우 흔하게 국소통증, 흉부 및 종창(swelling)이 나타나므로, 이 약을 관절腔에 투여한 후 48시간 동안은 격렬한 운동이나 관절에 무리가 가는 행동은 피하도록 하고, 국소염증을 지시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 3) 이 약은 관절腔 외에 누출되면 통증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관절腔 내에 확실하게 투여한다. 4) 이 약은 숙련된 의사가 투여해야 한다. ※ 본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주요 주의사항으로 일부 생략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http://nedrug.mfds.go.kr>)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NSAIDs, 마침표를 찍다



급성통증 + 만성통증

급성 통증 염좌, 근육 및 힘줄 통증, 두통, 치통, 월경통, 피부염, 급성 상·하기도 감염 등

만성 통증 골관절염, 요통, 류마티스 관절염



[성분·함량] 1정 중 Pelubiprolen 45mg [성상] 연한 황색의 원형 서방성 펠루코팅정 [효능·효과] 다음 질환의 증상이나 징후의 완화: 골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요통(허리통증), 급성통증(예: 외상 후 통증, 원발월경통) [용법·용량] 1회 1정, 1일 2회 식후 경구투여 원발성월경통의 경우, 초기 권장 투여량은 1정. 필요시 투여 첫날에 1정추가 둘째날 부터는 필요 시, 권장량으로 1회 1정, 1일 2회 투여 [포장단위] 30정, 500정/Bottle [저장방법] 차광기밀용기, 실온(1~30℃) 보관 [사용기한] 제조일로부터 36개월

Daewon 대원제약

